

“공공기관 이전 독려 정부가 나서달라”

국무총리-전국 혁신도시 자치단체장 간담회

정총리 “내달중 기관장 회의 이행 독려” 지역민들, 부지매입 등 이전 약속 촉구

정부가 내년 1월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장 회의를 갖기로 한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이 자리가 이전부지 조기매입 등 공공기관 이전을 약속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중추기관인 한전의 경우 이전부지 조성원가 인하 등을 요구하면서 부지 매입계약을 차일 피일 미뤄 조성사업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문찬 국무총리는 17일 삼청동 총리관에서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기초자치단체장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 14개 혁신도시 지자체 가운데 오는 24일 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선고공판을 앞둔 박수광 음성군수를 제외한 지자체장 13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회장인 박보생 김천시장은 “진정성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혁신도시의) 인센티브를 세종시와 동일하게 제공해 조성원가 인하를 통해 혁신도시가 조기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광형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한전 등 선도기관의 부지매입과 부지매입계약 지연에 따른 시행사의 이자비용 지원, 이주인 재정착 지원 등이 시급하다”며 “한전 등 선도기관이 조속히 이전하는 것만이 시·도민의 불안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내년 1월 중 혁신도시 이전 기관장 회의를 열어 (혁신도시 건설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독려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중태 총리실 정책홍보비서관은 전했다.

정 총리는 또 “세종시 발전방안(대안) 마련과 관계없이 정부의 혁신도시



1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관에서 열린 혁신도시 자치단체장 오찬간담회에서 정문찬(왼쪽) 국무총리와 전국혁신도시협의회 박보생(김천시장) 회장이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진의지는 변함없이 확고하다”며 “혁신도시의 성공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혁신도시를 자족기능과 경쟁력을 갖춘 지역성장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해당지역에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고 기업유치 활동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일부 참석자는 “지난 촛불시위 때도 책임지고 나서는 장관들이 없었는데 이번 문제도 장관들이 나서서 산하 단체장을 설득하고 조정하면 컨센서스를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

했고 이에 대해 정 총리는 “각 부처 장관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혁신도시 건설 추진과정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향후 지원방안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세종시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필요한 오해와 우려가 해소되고, 혁신도시 건설 추진을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사업 일정과 관련, 157

개 공공기관 중 117개 기관의 이전계획을 승인했고, 나머지 40개 기관도 조속히 이전계획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지보상은 거의 마무리 단계(99.2% 보상)에 있으며, 부지조성공사는 전체 43개 공구 중 42개 공구(미착공 경남 2-2공구)에서 착공한 상태다.

광주시 관계자는 “내달 총리와 이전대상 공공기관장 회의는 한전 등이 이전부지를 즉시 매입하는 등 실질적인 이전추진을 약속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 2011년 국제환경회의 유치 추진

광주시는 17일 “2011년 광주에서 개최 예정인 UN환경협약도시 광주정상회의 기간에 맞춰 국제환경회의 유치를 추진중이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2011 UN환경협약도시 광주정상회의’는 전 세계 108개 도시들이 분야별로 나눠 다양한 환경정책을 논의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행사다.

광주시는 이 기간 동안 국제환경도시로서 위상을 세우는 한편, 다양한 국제환경회의의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유치를 추진중인 국제환경회의는 유엔환경계획 청년포럼과 UNU&GIST 국제환경연구소 심포지엄, 한·중·일 국제기상학술회의, 세계생물다양성 정보기구 아태지역 심포지엄, 세계도시공원 녹지연합 국제회의, 환경법학회 등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

광주시의회 ‘광주 시민의 날 변경 토론회’

광주시의회는 17일 오전 시의회 예결특위 회의실에서 ‘시민의 날 변경 관련 토론회’를 갖고 시민 축제 한마당으로 개최되는 시민의 날을 변경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제일병 광주발전연구원장의 ‘시민의 날 활성화와 변경 필요성’에 대한 기초발제에 이어 류한호 광주대 교수의 사회로 나간채 전남대교수, 오수열 조선대 교수, 김영집 참여자치 21 대표, 노희용 광주시 문화수도정책관 등이 토론을 벌였다.

채 원장은 “현재 광주 시민의 날(11월1일)은 광주를 대표하는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상징성이 부족해 시민의 날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광주시민이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사실을 상징화하고 광주의 브랜드 효과를 높일수 있는 날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5월18일과 계엄군 도청 철수일이 5월21일 등 5·18 기념주기와 연계해 시민의 날을 개최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장애인 먼저” ‘2009장애인 먼저 실천증진대회 및 시상식’이 17일 호남대학교 광산캠퍼스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울동으로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최초 도심형 다운하우스 첨단 비버리힐즈

2단지 20필지 분양개시

※ 단지 최소분할 면적은 150평 이상(분할 160평)

Sample House 파/격/분/양

1. 전용공 3억 5천만원 2억 5천만원 최저 지원
2. 단·공·기종거주 마피드 대대 납입 가능
※ 분양권 보유분은 사전에 계약하여 투쟁시도

시행사 그린비(주) | 시공사 JHC | 분양/문의 062)375-7000 | 분양/문의 062)974-5553



전남 4개 브랜드 ‘전국 베스트 쌀 12’에 뽑혀

전남쌀이 소비자단체에서 뽑은 올해 전국 최고의 쌀 12개 브랜드 가운데 4개나 선정되는 등 대한민국 최고의 쌀임이 또다시 입증됐다. 특히 이번에 최우수상을 받은 해남 옥천농협의 ‘한눈에 반한 쌀’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7년 연속 ‘전국 고품질 브랜드쌀 베스트 12’에 뽑히는 성과를 거뒀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실시된 ‘2009 전국 고품질 브랜드쌀 베스트 12’ 평가에서 해남 ‘한눈에 반한

쌀’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또 강진 ‘프리미엄 호평’은 우수상, 그리고 영암 ‘달마지쌀 골드’와 보성 ‘녹차미인 보성쌀’은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다.

전남산 브랜드쌀은 평가 첫해인 2003년에 4개가 선정된 것을 시작으로 매년 ‘베스트 12’ 중 3~5개를 차지할 정도로 명품쌀의 입지를 굳혀오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해남 ‘한눈에 반한 쌀’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7년 연속 ‘베스트 12’에

뽑히는 진기록을 달성했으며 최우수상도 3차례나 받게 됐다. 올해 ‘베스트 12’에 오른 강진 ‘프리미엄 호평’과 영암 ‘달마지쌀 골드’도 3차례나 뽑혔으며, 보성 ‘녹차미인 보성쌀’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됐다.

이번 ‘베스트 12’에 오르진 못했지만 나주 ‘드림생미’와 ‘황진이 탐미 쌀 골드’도 5차례, 4차례씩 선정되기도 해 전남 브랜드쌀이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음을 보여줬다. /홍행기기자 redplane@

박광태 시장 국회 방문 현안 사업비 반영 요청

박광태 광주시장(사진)은 17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국회를 방문해 지역현안사업 예산을 추가로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시장은 이날 국회 예결위원회 소속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을 1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증액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또한 진곡산단 진입도로 개설비 400억원, 북부 순환도로 개설비 100억원, 국립 광주중앙도서관 건립비 600억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CT) 설립비 33억원을 확보해달라



주하면서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고 여야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국회 예결위원회의 기간에 김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상